

산림청 임업연구원(원장 김영달)에서는 송이채취시기를 앞두고, 최근 갑소추세인 송이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재배차원의 송이산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송이채취에서 송이재 배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철저한 송이산 가꾸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양봉인들도 전업양봉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처지라 복합영농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경향인데 이 자료가 유망부업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한다.

◆송이현황

송이는 벼섯종 외화소득이 가장 높은 산림부산물이며, 연평균 5천만불 정도를 수출하는 농산촌 최고의 임산소득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송이수입국 일본의 최인접국으로 신선도가 생명인 송이수출에서는 천혜의 자연적 여건이며, 우리나라 생산량을 전량 수출하여도 일본 수요량의 10%내외를 점할뿐으로 수요무한의 소득증대품이다.

우리나라의 송이생산량은 80년대 중반부터 감소추세이며, 그 원인은 병충해등으로 소나무림이 쇠퇴하고, 산림이 물창해짐에 따라 송이 발생환경이 악화되는데 있다.

'96년도 일본은 아시아권 외에도 아프리카와 북미지역을 포함한 11국으로부터 2,700여톤을 수입하였고, 이중 6%를 점한 우리나라 송이 수출물량면에서 중국, 북한, 캐나다, 미국에 이은 5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균근성버섯과 마찬

산림청

송이발생량 증가시키는 요령

가지로 송이는 아직 인공재배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이발생림에서 미발생소

나무림으로의 이식도 되지 않아

자연상태의 발생림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송이산 환경관리는 송이발생

림과 미발생 적지에 대한 환경개선, 환경조성으로 최적 발생조건

만으로도 2배 이상의 송이증산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이산 관리요령

1. 식생관리

△적정밀도의 소나무림을 세력이 좋은 상층림으로 만들기 위하여 침나무류를 포함한 직경 6cm 이상의 활엽목은 전부 제거 한다.

△하층 활엽목은 2cm 높이에서 절단하고 잔존본수는 1~2 본/1m² 정도 남기며, 지상2m 이

상은 소나무만 남도록 한다.

△벌채목과 제거된 고사지는 반드시 송이산 밖으로 반출한

△소나무지배림(소나무수) 타수종수)이 아닌 경우는 점진적 으로 다른 수종을 제거하고, 소나무치수를 잔존시켜 후계수로 육성한다.

△높이 1m이하의 관목, 초본은 전부 제거하고 잔존 활엽목도 이 높이 까지는 지엽을 모두 제거한다. (30%이하의 피복도 효과)

△기타 피복: 송이가 지상에 보이기 시작하면, 4~5cm 두께로 심토를 덮어주고, 그위로 올라오면 한번 더 3~4cm 두께로 덮어준다(증산 및 상등품수확)

△관수(물주기): 강수량이 송

△식생정리작업은 새잎이 완전히 전개된 후(5~8월)에 실시 한다.

△낙엽부식층의 깊이가 6cm 이상이면 낙엽긁기를 해주고,

3~5cm는 식생 및 퇴적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지표면 정리는 소나무의 휴면기인 겨울동안에 실시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3. 송이균환 관리

△매년 송이발생 위치를 표시하여 송이를 발생시키는 모체인 균환(균사집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균환선단의 전진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다(식생과 부식층 제거, 침식되거나 토성이 악은 곳은 복토)

△송이균환 1개당 포자전파용 종자송이를 1~2개 남긴다.

4. 송이품질 관리

△컵 씨우기: 갓 직경 3cm 미만의 어린 송이에 직경 6.5cm, 높이 8cm의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컵을 윗쪽에 직경 5mm 크기의 구멍을 뚫어서 3~4일간 씌운다(충해방지 및 2배의 증수 효과)

△흙 피복: 송이가 지상에 보이기 시작하면, 4~5cm 두께로 심토를 덮어주고, 그위로 올라오면 한번 더 3~4cm 두께로 덮어준다(증산 및 상등품수확)

△관수(물주기): 강수량이 송이생산량에 영향하는 지역을 대

상으로 스프링쿨러장치나 호스를 이용하여 송이원기가 형성되는 8월 초순부터 2일간격으로 $^{\text{m}}\text{당 } 10\ell$ 의 물을 관수해 준다. (5배이상 증산 및 상등품 수확)

5. 사업후의 관리

△식생관리 보완작업은 이듬해 및 2~3년 간격으로 실시하며, 하층목 및 그루터기의 맹아지와 지표면의 초본류를 모두 제거한다.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충영

형성을 30% 미만으로 유지한다. 방제 첫해는 송이산 전체를 수간 주사하고, 이듬해부터는 송이발생지 주변만을 집중 방제한다.

△현재 송이가 나는 발생림에 급격한 환경변화를 주면 그 영향으로 4~5년간 송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벼운 시업을 수년에 걸쳐 반복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미발생 어린 소나무림의 낙엽부식층은 갈색삼립토가 보이도록 강하게 긁어주고, 본격적인 시업기에 달할때까지 서서히 유도해 간다. <출처: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미생물과. 97/08/29>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공무원 사법권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다른 지역의 쌀을 경기 미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12일 농림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사법경찰 관리의 집무를 행할 자와 그 집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재류 등을 집중단속하고 현재 물 원산지 단속을 담당하는 각 시도 및 국립농산물검사소, 국립수산물검사소 공무원에게 사

법권을 주도록 관련조항 개정작업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농림부는 현재 법무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올해 안에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원산지표시 단속 공무원들의 식별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주로 적발해오던 원산지표시 단속을 앞으로는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쪽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은 소형 유통업체와 잡곡류·약재류 등을 집중단속하고 현재 4백4개 품목인 원산지표시대상 품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피투(P₂) 신제품 생산판매

하절기 새로운 제조기술에 의해 생산된 P₂ 신제품은 금년봄 생산된 일부 제품의 단점을 완벽한 실험하에 보완시킴으로서 가시옹애 및 꿀벌진드기를 100%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제품입니다.

가시옹애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봉군은 P₂스트립의 교환시기를 10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처리하십시오

① 탁월한 효과와 저렴한 가격



② 편리한 사용법

③ 소상 전면에 부착하므로 소비 취급에 편리



④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방제효과 지속

⑤ 꿀벌과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

가시옹애 및 꿀벌진드기의 시작과 마지막 구제시기인 2월부터 11월은 금년과 내년도까지 양봉사업의 승패를 가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시옹애 피해, P₂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품 제조원

(주) 대성미생물연구소

(주) 한동

(주) 중앙케미칼

판매원(전국총판) … 한국 유일의 봉기구 전문 생산업체

고려양봉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5-16

☎ 053-424-8252 · 5040, FAX 053-425-1310

은행 온라인구좌번호

(예금주: 고상인)

• 농협 703-01-004324

• 우체국 700039-0106059

• 국민은행 601-01-0018-266